

중국 초한전쟁기(기원전 206-기원전 202년) 정형 전투(井陘之戰)에 대한 군사지리학적 재해석

이동민*

A Military Geographic Reinterpretation of the Battle of Jingxing in the Chu-Han Contention (206-202 B.C.E.)

Dong-min Lee*

요약 : 본 연구는 중국 초한전쟁기(기원전 206년-기원전 202년)의 결정적 전투였던 정형 전투(井陘之戰, 기원전 204년)의 과정 및 경과를 군사지리학적 관점에서 재접근하여 정형 전투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정형 전투는 흔히 한신이 배수진과 기습을 활용하여 휘하 병력의 양적·질적 열세를 극복하고 조(趙)나라를 멸망시켜 초한전쟁의 향방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온 전투로 간주된다. 본 연구는 정형 전투가 일어난 전장 공간에 대한 군사지리적 분석을 통하여 한신이 정형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을 지리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 정형 전투는 해발고도 300-500m의 구릉성 산지가 분포하는 전장 공간에서 일어났으며, 그 북쪽에는 최대 해발고도 500m 이상의 산지가 분포했다. 이는 한신이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조군을 유인·고착하는 한편으로 조군의 본진을 기습하여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형 전투, 나아가 전쟁사에 대한 지리적 접근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제시한다.

주요어 : 군사지리학, 전쟁사, 정형 전투, 한신, 초한전쟁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nterpret the process and sequence of the Battle of Jingxing (204 B.C.E.) from the perspective of military geography. Despite his military inferiority, Han Xin conquered Zhao using burning-bridge operations and surprise attacks at the Battle of Jingxing, which is generally regarded as the decisive turning point of the Chu-Han Contention (206-202 B.C.E.), the interregnum period in ancient China between the fallen Qin dynasty and the subsequent Han dynasty. This study attempts to reinterpret the factors that led Han Xin to defeat the Zhao forces in Jingxing. The battlefield of the Battle of Jingxing was composed of mountainous terrain with an altitude ranging from 300 meters to 500 meters. In addition, mountains with an altitude of above 500 meters were located in the north of the battlefield.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se geographic factors were one of the significant factors in Han Xin's decisive victory in the Battle of Jingx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highlight the important discussions on the geographic approach toward the Battle of Jingxing and military histories.

Key Words : Military geography, Military history, Battle of Jingxing, Han Xin, Chu-Han Contention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dr.dongminlee@gmail.com)

I. 서론

“이는 방법에 있는 것이지만 그대들이 잘 살피지 않았을 뿐이네. 방법에 이르길 ‘죽는 곳에 빠진 뒤에야 살아나고, 망하는 곳에 남겨진 뒤에야 보존된다’라고 하지 않던가? 게다가 나는 평소에 잘 훈련된 장졸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른바 ‘길거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꺾박해서 싸우게 하는’ 처지였으므로, 그 형세가 사람들을 사지(死地)에 몰아넣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싸우게 하지 않고 생지(生地)를 마련해 주었다면 모두 달아났을 걸세(此在兵法, 顧諸君不察耳. 兵法不曰, 陷之死地而後生, 置之亡地而後存. 且信非得素拊循士大夫野, 此所謂驅市人而戰地, 其勢非置之死地, 使人人自爲戰, 今予之生地, 皆走.).”(최익순 역, 2014:127-128)

위에 인용한 인용문은 『사기(史記)』 중 한신(韓信, ?-196 B.C.E.)¹⁾의 열전인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²⁾의 일부이다. 이는 고대 중국의 진(秦)·한(漢) 교체기에 일어난 초한전쟁(기원전 206년-기원전 202년)의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평가받는 정형 전투(井陘之戰, 기원전 204년 10월)³⁾에서 한나라의 대장군 한신이 배수진을 활용하여 단 하루 만에 조나라의 대군을 섬멸하고 조나라를 멸망시키는 대승을 거둔 뒤 부하 장수들에게 남겼다고 전해지는 말이다.

한신이 병법에서 금기시했던 배수진⁴⁾으로 군사들의 투지를 고양하여 정형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내용은 『사기』뿐만 아니라 후대에 편찬된 중국의 역사책인 『한서(漢書)』, 『자치통감(資治通鑑)』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권중달 역, 2009; 盧敦基·李利忠, 2004; 김하나 역, 2013). 예컨대 『자치통감(資治通鑑)』은 한신 휘하의 장병들이 배수진으로 인해 고립되었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결사의 각오로 싸워 조군을 격파할 수 있었다는 후한 말의 명사 순열(荀悅)의 논설을 수록하고 있다(권중달 역, 2009:90). 조선 후기의 학자 홍직필(洪直弼) 또한 저서 『매산집(梅山集)』에 실린 한시 「달천전장(達川戰場)」에서 한신의 배수진을 활법(活法), 즉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묘책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임진왜란 초기 탄금대 전투에서 전황에 맞도록 응용성 있게 활용하지 못한 신립의 실책을 안타까워한 바 있다(런샤오리(任曉禮)·추이위안핑(崔元萍), 2019).

그런데 정형 전투에서 한신은 정말로 배수진을 이용해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감투 정신을 끌어낸 것만으로 그토록 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물론 전투에서 장병들의 사기와 전투 수행 의지가 중요함은 굳이 설명할 필요까지도 없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불리한 전황을 극복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전투의 승패는 사기 외에도 병력의 양적·질적 수준, 지휘 계통, 병과나 병종의 차이, 방어 시설이나 무기체계 등, 지형지물, 기후 등 다양한 요인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위 문단에서 홍직필은 한신의 배수진은 활법, 신립의 배수진은 실책으로 평가했는데, 그렇다면 한신과 신립의 배수진이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진 까닭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한신이 정형 전투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까닭을 정형 전투가 일어난 전장 공간의 군사지리적 환경과 관련지어 재해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신이 지휘했던 병력의 양적·질적 수준이 조군에 비해 현저한 열세에 처해 있었던데다 이 같은 열세를 극복할 만한 보급이나 무기체계의 우세 또한 없었음(蔡志鎔·羅春秋, 2014)을 고려하면, 한신의 정형 전투 승리는 전장 공간의 군사지리적 측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고 가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형 전투의 일차 사료에 해당하는 『사기』 권92 「회음후열전」 및 권89 「장이진여열전(張耳陳餘列傳)」,⁵⁾ 그리고 정형 전투를 다룬 각종 문헌 및 선행연구 자료를 검토하여 정형 전투가 일어난 전장 공간의 군사지리적 특성이 어떠하며 정형 전투의 진행 과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형 전투를 지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초한전쟁 및 정형 전투에 대한 이해를 심화·다각화하고, 나아가 전쟁사에 대한 지리적 접근에 관한 한층 깊이 있는 이론적 논의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II. 전쟁의 지리적 속성과 전쟁사를 지리적으로 접근할 필요성

1. 전쟁의 지리적 속성

전쟁은 지리적 속성을 강하게 가진다(Collins, 2018). 전쟁의 발발은 영토의 확장, 국가나 민족 집단 간의 지정학적 관계, 지정학적·경제적·군사적 요지의 확보, 교역

로나 교통로의 확보 등과 같은 지리적 동기와 관계 깊다. 전쟁의 과정 또한 지리적 요인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지형, 기후, 교통, 취락이나 도시의 분포 등과 같은 지리적 환경은 병력과 장비의 배치와 운용, 군수 보급, 무기체제와 군사교리의 개발, 정보획득과 분석 등 전쟁의 전 분야에 증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지도와 지리 정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사적 자산으로 중시되어 왔다. 일례로 총 13개 장으로 구성된 『손자병법』은 총론 격인 1장 「시계(始計)」 편에서는 지형지물과 기후 등 지리적 요인을 장수와 군주가 전쟁을 하면서 고려해야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중시하고 있으며, 9장 「행군(行軍)」 편은 지형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병력의 기동과 배치에 관한 논의를, 10장 「지형(地形)」 편에서는 군사행동에 유리한 지형과 불리한 지형의 유형을, 11장 「구지(九地)」 편에서는 지형 유형에 따른 군사 전술의 방향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다(김원중 역, 2016; 蔡志銓, 2017). 이외에도 『손자병법』은 전 장에 걸쳐 지형, 기후 등 지리적 요인의 군사적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⁶⁾ 또한 『아우구스투스 업적록』에는 고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정복 전쟁 과정에서 획득한 다수의 군사지리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로마의 장군 아그리파(Marcus Vipsanius Agrippa)는 당시로서는 매우 정밀한 수준의 군사지도를 편찬하기도 하였다(Arnaud, 2016). 조선 시대의 지리지와 지도 편찬 또한 군사적 목적이 다분히 반영되었고, 임진왜란 등의 전쟁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하였다(허태구, 2014). 아울러 근대 유럽의 군사 강국 프로이센은 지리교육을 군사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교과목으로 중시했고, 이 과정에서 근대 지리학의 시조로 평가받는 칼 리터(Carl Ritter)에게 지리교육을 받은 프로이센군의 엘리트 장교단은 프로이센과 독일제국 군부는 물론 독일제국 학계에서 지리학이 중요한 학문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다(Hudson, 1972). 독도법(讀圖法), 야전축성 등의 지리적 역량은 군인, 특히 지휘관·참모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질로 중요시되고 있다.

현대전에서도 지리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 예를 들어 현대 군대의 지휘체계인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는 GPS, GIS, 무인항공기, 군사위성 등을 통해 획득한 공간정보의 실시간 활용을 통하여 동시 통합적인 의사결정, 정보 획득 및 작전 수행을 실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Smith, 1992; Modiri *et al.*, 2013; Nothhaft, 2016). 현대 미군의 군사교리인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 역시 지표 공간, 해양공간, 공중공간, 가상공간, 우주공간이라는 다양한 지리적·공간적 영역에서의 동시 통합적 작전 수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Wójtowicz and Król, 2018). 아울러 오늘날 세계 각국은 GIS, GPS, 원격탐사 장비 등이 통합된 보병용 개인 장구 개발을 통하여 보병 개개인이 지리적 환경에 적합한 전투 임무 수행을 효과적으로 하게끔 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기울이고 있다(신규용 등, 2021).

응용지리학의 한 분야인 군사지리학은 이 같은 전쟁의 지리적 속성과 밀접하게 관계된다. 군사지리학은 인문지리적·자연지리적 요인의 군사적 의미와 활용을 다루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황성한·김만규, 2015; Collins, 2018).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유고슬라비아 내전, 2014년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지형이나 기후, 민족 집단의 영역성, 지정학적 위치, 교통 등과 같은 군사지리적 요인은 군사기술의 발달로 지리적 제약이 상당 부분 극복된 현대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오늘날에도 군사지리학 연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Biersack and O'lear, 2014). GIS, GPS, 원격탐사, 군사위성과 무인기 등 군사지리 기술의 발달 역시 오늘날의 군사학 및 군사지리학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다(Corson and Palka, 2004). 아울러 최근 들어서는 지리적 요인의 군사적 의미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인 군사지리학 연구의 관점에서 벗어나, 반전(反戰)사상을 토대로 지리적 관점에서 전쟁이나 무력 충돌 등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비판적 군사지리학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황성한·김만규, 2015).

2. 전쟁사에 대한 지리적 접근의 필요성과 의의

전쟁이란 지리적 속성이 다분한 행위이기 때문에, 전쟁사는 역사적 관점은 물론 군사지리적 관점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크다. 전장 공간 및 전쟁과 관련된 지역에 대한 지리적 이해가 전제될 때 전쟁이나 전투의 원인, 과정, 경과 등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 지리학과 역사학의 개조로 여겨지는 헤로도토스

의 『역사』는 이 같은 전쟁사에 대한 지리적 접근의 사례와 필요성을 잘 보여 준다.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 전쟁사의 심도 있는 기술을 위해 『역사』에 페르시아 전쟁의 주요 전투가 일어난 전장 공간은 물론,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여러 지역이 가진 지리적 환경 또한 중요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다(Clark, 2018). 이슬람 문화권의 지리학·역사학을 대표하는 학자인 이븐 할둔(Ibn Khaldun)은 유목민과 농경민 간에 전쟁이 되풀이되어 온 역사를 스텝이나 오아시스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유목민과 정주 생활을 하는 농경민 간의 토지에 대한 관념의 차이에서 찾았고, 유목민이 세운 대제국의 짧은 수명과 빠른 몰락을 유목민의 생활 환경 변화에 따른 기강의 해이에서 찾기도 하였다(Dale, 2006). 오늘날의 학자들도 아틸라 제국, 몽골 제국 등 유목민 왕조의 발흥과 대대적인 영토 확장 전쟁의 원인과 과정을 기후변화 등 지리적 요인과 관련지어 접근하고 있다(McCormick *et al.*, 2012; Pederson *et al.*, 2014). 크림 전쟁,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세바스토폴 전투,⁷⁾ 2014년의 크림반도 사태 등은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의 지정학적 위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들 전쟁의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Melvin, 2017). 아울러 유고슬라비아 내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소련·핀란드 전쟁(겨울전쟁)⁸⁾은 민족 집단의 영역성이나 영토의 역사지리적 의미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Paasi, 1999).

전쟁사에 대한 지리적 접근은 전쟁 전체의 흐름이나 대전략, 전쟁과 관련된 지정학적·문화지리적 배경 등과 같은 큰 스케일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개의 전투 및 전투가 일어난 전장 공간 등과 같은 작은 스케일과 관련된 사안과도 밀접하게 관계된다. 예를 들어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일어난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군은 페르시아군을 높은 위치에서 공격함으로써 전술상의 우위를 차지한 데다, 마라톤 근처에 발달한 대규모의 늪지대로 페르시아군을 몰아넣음으로써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Holland, 2005; 이순호 역, 2006). 테르모필레 전투에서도 소수의 스파르타군은 험준한 산지로 둘러싸인 좁은 통로 지형인 테르모필레의 지형을 이용하여 페르시아의 대군을 고착할 수 있었고, 페르시아군은 현자인을 매수해 확보한 우회로로 정예 병력을 우회함으로써 스파르타군을 격멸할 수 있었다(Vouvalidis *et al.*, 2010). 이순신이 임진왜란에서 연승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암초와 섬

이 많고 물살이 빠른 남해안의 지형, 그리고 이 같은 해안지형에서 기동하고 전투하는 데 적합하게 설계된 조선 수군의 함선이 자리 잡고 있었다(송언근, 2016). 아울러 제2차 세계대전 초기인 1940년 나치 독일군은 마지노선이나 프랑스-벨기에 국경으로 진격하는 대신 기갑부대 중심의 주공을 프랑스-룩셈부르크 접경지대에 위치한 산악 지대인 아르덴(Ardenne)을 돌파하여 프랑스군 후방을 포위하는 방식으로 프랑스군을 무력화하여 불과 46일 만에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프랑스군은 1930년대에 반복 시행한 도상 연습 결과 대규모 부대의 아르덴 돌파에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나치 독일군은 아르덴을 1-2일 만에 돌파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었다(Harrison and Passmore, 2020).

물론 전쟁사를 지리적 관점으로만 바라보거나, 지리적 요인이 전쟁사의 흐름과 결과를 절대적으로 규정한다는 식의 시각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지리적 요인은 어디까지나 전쟁과 전쟁사의 한 요인일 뿐이지, 전쟁사를 절대적으로 결정짓는 인자는 아니기 때문이다(Sayachyan and Gevorgyan, 2020). 일례로 1940년 나치 독일군은 아르덴 돌파를 통해 프랑스를 단기간에 굴복시켰지만, 1944년 12월에는 마찬가지로 아르덴 돌파를 통해 연합군의 보급기지가 위치했던 벨기에 안트베르펜의 공략을 시도하다 실패했다(Harrison and Passmore, 2020). 하지만 전쟁은 지리적 속성을 특히 강하게 갖기 때문에, 전쟁사에 대한 지리적 접근은 전쟁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다.

III. 중국 초한전쟁기 한신의 북벌과 정형 전투⁹⁾

1. 초한전쟁

초한전쟁이란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인 진(秦)나라¹⁰⁾가 서초패왕(西楚霸王) 항우(項羽)에 의해 멸망한 기원전 206년부터 한(漢) 왕조가 중국을 통일한 기원전 202년까지 이어진, 한(漢)과 서초(西楚) 사이의 중국 패권 쟁탈전을 말한다. 시황제 사후인 기원전 209년 일어난 진승(陳勝)·오광(吳廣)의 난으로 인해 진나라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중국 동부에서는 진나라에 의해 멸망한 전

국시대(戰國時代)의 옛 육국(六國)인 초(楚), 제(齊), 조(趙), 위(魏), 연(燕)이 부활했다. 진승·오광의 난은 기원전 208년 진압되었지만, 이후 진나라는 육국 연합과 대치하는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진나라와 육국 연합의 내전은 애초에는 진나라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진군은 기원전 208년 진군은 초나라와 제나라의 구원군까지 격파하며 위나라를 멸망시켰고, 기원전 208년 말-207년 초에는 초나라의 도움 한단(邯鄲)을 초토화하고 조 왕실과 병력을 한단 북쪽의 거록(鉅鹿)에서 완전히 포위하는 등 연승을 이어 갔다. 하지만 초나라의 장수 항우(項羽)가 쿠데타를 일으켜 병권을 장악한 뒤 단독으로 압도적으로 우세한 거록의 진군을 격파하자, 전세는 역전되었다. 항우는 기원전 207년 후반 진군 주력부대의 항복을 받아내어 그들을 흡수하기까지 함으로써 육국 연맹을 장악하고 진나라의 군사력을 사실상 와해시키는 데 성공했다.

한편 초군의 별동대장이었던 유방은 항우가 거록에서 진군을 격파하고 흡수하는 동안 진나라의 수도 함양이 있던 관중(關中)분지에 입성하여 진왕(秦王) 자영(子嬰)¹¹⁾의 항복을 받아냈다. 진나라가 육국 연합을 상대로 우세한 전쟁을 이어 가던 기원전 208년에 아직 초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던 회왕(懷王)이 관중에 먼저 입성하는 자를 관중왕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한 데다 유방은 관중에서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유방은 관중왕이 될 명분을 갖고 있었다(柴田昇, 2015; 2018; 齋藤道子, 2017).

하지만 유방에 이어 관중에 입성한 항우는 자영을 참살하고 함양을 초토화한 뒤, 초 회왕을 사실상의 꼭두각시 황제인 의제(義帝)로 옹립한 뒤 스스로 제후왕의 맹주인 패왕(霸王)에 오른 다음 육국의 왕과 대진(對秦) 전쟁의 공신 18명을 제후왕으로 봉하는 봉건적 영토 체제(항우의 18 제후왕 체제)를 세웠다. 유방은 관중왕 대신 한왕(漢王)에 봉해져 중국의 오지였던 파촉(巴蜀)¹²⁾과 한중(漢中)¹³⁾으로 사실상 유배 보내졌다.

그런데 항우의 18 제후왕 체제는 처음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항우가 18 제후왕 선정 기준을 주요 제후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분명하게 마련하거나 제후왕 선정을 둘러싼 제후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항우는 고대 중국의 중심지였던 관중분지(한지은, 2020) 대신 초나라의 근거지였던 팽성(彭城)을 근거지로 삼았다. 게다가 그는 18 제후왕 체제 수립 직후 의제를 별다른 명분도 없이 살해하여 정

치적 정당성을 스스로 내다 버리는 실책까지 저질렀다. 이 외중에 유방은 항우가 오늘날 산둥반도 일대에 있었던 제나라의 반란을 진압하러 간 틈을 타 관중을 기습 공격하여 점령함으로써, 항우와 중국의 패권 쟁탈전을 벌일 수 있는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유방은 기원전 205년 제나라의 반란이 계속되어 항우가 부재한 틈을 타 팽성을 일시 점령했다가 항우의 역습을 받아 참패한 뒤, 열세 속에서도 형양(滎陽)¹⁴⁾·성고(成皋)¹⁵⁾ 전선을 고수하며 서초와 대치를 이어 갔다(陳力, 2020). 그런 가운데 유방은 한신의 북벌을 통해 중국 북동부를 정벌하여 서초를 북쪽에서 포위하는 한편으로, 항우의 측근이었던 구강왕(九江王) 영포(英布), 팽성과 형양·성고를 잇는 보급로 일대에서 활동하던 군벌 팽월(彭越) 등을 회유하여 서초의 후방 영토와 보급로를 교란했다. 이로 인해 서초군은 보급 문제에 시달리며 전력이 약화되어 갔고, 결국 기원전 202년 한나라는 서초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하여 한 왕조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

2. 한신의 북벌과 정형 전투

한신은 몰락한 가문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비를 걸어오는 건달과의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자 그의 가량이 사이를 지나갔다는 과하지욕(袴下之辱)의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불우한 젊은 시절을 보냈다. 진승·오광의 난이 일어나자 그는 항우 휘하에 들어갔지만, 미관말직을 전전하는 등 중용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유방이 한왕으로 책봉되자 군영을 탈주하여 한군에 합류했고, 유방의 최측근이자 한나라의 초대 상국(相國)이기도 한 소하(蕭何)의 천거로 대장군에 임명되는 파격적인 승진을 했다(勝藤猛, 2001).

한신은 유방이 형양·성고에서 우세한 서초군과 대치를 시작할 무렵, 군사를 이끌고 위나라를 정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위나라는 관중분지와 인접하여 한나라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지리적 입지를 가졌다. 게다가 위왕 위표(魏豹)는 유방이 관중분지를 정벌한 뒤 유방에게 귀순했다가 팽성 대전 직후 그 한나라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적으로 돌아선 상태였다. 유방은 관중분지 북동부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하고 배신행위를 자행한 위표를 처단함으로써, 지리적 안전 보장과 정치적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위나라의 북동쪽에 위치한 조



그림 1. 초한전쟁의 과정

출처 : Wikipedia(Chu-Han Contention 항목) 연구자 재구성.

* 연나라는 정형 전투 직후인 기원전 204년 한나라에 항복했음. 지도에서 한신의 진격로가 바로 북벌로임.

(趙), 연(燕), 제(濟) 등은 서초와 한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굴복시킨다면 서초 후방에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초한전쟁의 전황을 극적으로 전환할 수도 있었다(陳力, 2020).

정형 전투는 고대부터 타이항산맥의 주요 교통로로 쓰였던 태항팔형(太行八陁)의 하나인 정형의 동쪽 관문인 정형구 일대에서 일어난 전투이다(靳生禾·謝鴻喜, 2012; 范晓·白英, 2016). 정형의 돌파와 조나라의 정벌은 한군이 타이항산맥 이동(以東)으로 진출하여 북벌을 완수하고 서초의 후방을 포위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정형 전투는 초한전쟁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는 전투이기도 하였다(靳生禾·謝鴻喜, 2012; 이동민, 2020).

그런데 정형 전투에서 한신이 거느렸던 병력의 양적·질적 수준은 매우 열악했다. 조군이 무려 2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이었던데다 무장 상태와 훈련 수준 역시 뛰어난 정예군이었던 데 반해, 한신의 병력은 많게 잡아도 5만 명에 그쳤던 데다 서론에서 인용한 <회음후열전>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예병이라고 보기도 어려웠다(盧敦基·李利忠, 2004; 김하나 역, 2013; 최익순 역, 2014; 蔡志銓·羅春秋, 2014). 한군의 본진인 형양·성고 전선에서 유방이 서초군과의 불리한 대치를 이어 가

했기 때문에, 한신에게 병력과 물자를 충분히 지원해주기는커녕 위나라에서 흡수한 정예 병력마저 형양·성고 전선으로 차출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명성을 날렸고 본래 항우에게 조나라 지역의 제후왕으로 책봉되었으나 옛 친구인 진여(陳餘)에게 실권을 빼앗긴 뒤 한에 귀순한 장이(張耳)도 한신을 보좌했다.

한신이 이처럼 양적·질적 수준이 열악한 병력을 지휘하여 정형을 통과하는 동안, 조나라의 장수 이좌거(李左車)는 국정을 장악하고 있던 권신 진여에게 소수의 별도대로 정형을 기습하여 한군의 보급로를 교란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진여는 조군의 전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데다 한군을 야전에서 보기 좋게 대파함으로써 중국 전역에 조나라의 역량과 위세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좌거의 제안을 기각한 다음, 조철과 함께 조군 병력 대부분을 이끌고 정형구 인근의 성체에 주둔하며 한신과 싸울 준비를 했다.

기원전 205년 10월 정형구 인근에 도착한 한신은 이른 새벽에 정예 기병 2천 기를 별도대로 삼아 한나라를 상징하는 붉은 색 깃발을 휴대하게 한 뒤, 괘운산 인근에 매복해 있다가 조군이 성채를 빠져나오면 그 틈을 타 성채를 점거한 뒤 붉은색 깃발을 성벽에 세우라는 명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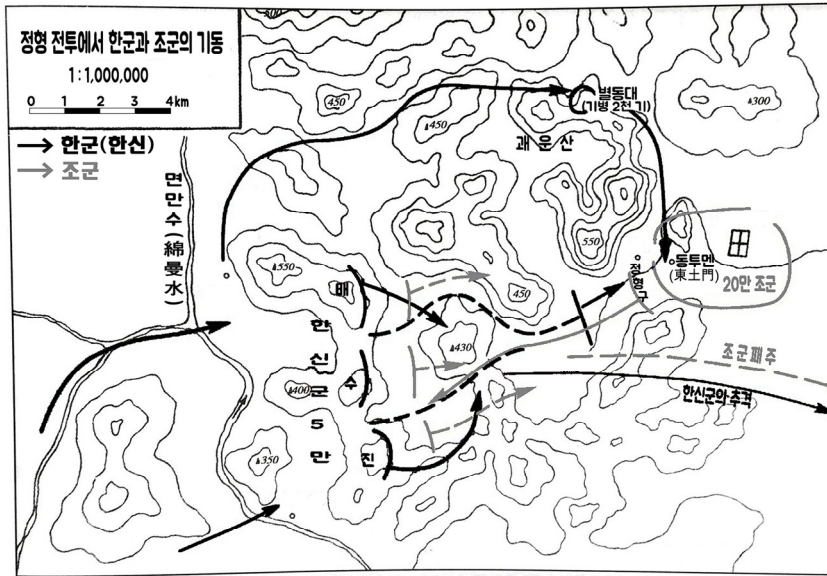


그림 2. 정형 전투의 전장 공간 및 한군과 조군의 기동

출처 : 中國歷代戰爭史編纂委員會(1963)의 자료에 수록된 부도 3-89(蔡志銓·羅春秋(2014:81)에서 재인용)를 안성기 대학원생(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과정)이 재구성.

내렸다. 아울러 1만 명 정도의 후위대로 하여금 면만수(綿蔓水: 오늘날 예허(冶河))를 등지는 배수진을 구축하게 한 다음, 본인이 지휘하는 본대를 이끌고 조군 성채를 향해 진격했다. 조군은 배수진을 친 한신을 조종하며 성 밖으로 나와 공격을 개시했고, 한신은 군기와 대장기까지 버리며 면만수 방향으로 퇴각하기 시작했다. 진여는 면만수에서 한군을 섬멸하기 위해 전 병력을 이끌고 한군을 추격했지만, 한군의 생각 이상으로 완강한 저항에 고전하며 휴식과 병력 재편을 위해 일단 철수를 명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관운산 일대에 매복해 있던 한군의 별동대가 조군 성채를 점령한 뒤 성벽에 붉은색 깃발을 꽂자, 20만 조군은 순식간에 사기를 잃은 채 우왕좌왕하다 면만수 방향의 한군이 가해 오는 역습에 와해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조나라는 군사력이 사실상 붕괴한 데다 국왕 조홀과 실세 진여까지 전사하면서 고작 하루 만에 멸망하고 한나라의 영토로 흡수되고 말았다.

한나라는 정형 전투를 통해 중대한 전략적 지형학적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한나라는 정형과 조나라를 확보함으로써 타이항산 동쪽으로 진출할 발판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었다. 게다가 연나라는 한신의 군사적 역량과 업적에 압도되어 스스로 한나라에 항복을 청해 오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한나라는 중국 북동부를 장악하여 관

중분지 동쪽으로부터의 위협을 차단하고 새로 얻은 영토의 인구와 자원을 흡수함은 물론, 서초의 배후를 공격할 수 있는 지리적 발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기원전 203년에 일어난 한신의 제나라 정벌, 그리고 기원전 202년 제왕(齊王)으로 책봉된 한신의 서초 침공에 따른 서초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柴田昇, 2016; 2018).

IV. 정형 전투(기원전 204년 10월)에 대한 군사지리학적 재해석

1. 정형 전투의 전장 공간 개관

정형 전투가 일어난 전장 공간의 지형 및 한군과 조군의 포진과 기동 양상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를 살펴보면 한신은 면만수 동안 일대에 진지를 구축했고, 조군은 정형구에서 동쪽으로 1-2km 정도 떨어진 오늘날의 허베이성 스톈자좡(石家莊)시 동투먼(東土門)군 일대에 성채를 구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정형 전투 당시 한군과 조군이 어떤 방향으로 기동했는가를 잘 보여 준다. 우선 한군과 조군이 격돌했을 주전장은 그림 2의 지도 중앙부에서 남쪽 일대에

걸쳐 있는, 430고지, 450고지 등이 분포하는 영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조군이 성채를 빠져나와 한군을 면만수 동안의 진지까지 몰아붙였지만 결국 한군 진지를 함락하지 못하고 철수하는 경로를 잘 보여 준다.

아울러 그림 2를 통해서 한신의 별동대는 한신이 면만수에 도착한 직후 지도 북쪽의 450고지와 패운산을 잇는 셋길로 기동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조군 성채와 면만수 사이의 거리가 약 12km 정도인데, 이는 한신이 정형구 30리 전방에 도착했을 무렵 병력에 휴식을 취하고 식사를 할 여유를 주어 전투 준비를 취함과 동시에 새벽같이 별동대를 파견했다는 「회음후열전」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별동대는 패운산 동쪽 사면 일대에 매복해 있다가 조군이 성채를 비운 틈을 타 성채를 점령하고 한나라의 붉은 색 깃발을 성벽에 게양했으리라 판단된다.

“(한신은)병력을 인솔하여 정형구 30리 전방까지 진출한 뒤 일단 정지했다. 때는 한밤중이었는데, 한신은 기병 2천기를 선발하고 그들에게 붉은 깃발을 하나씩 지참하게 한 다음, 패운산의 셋길로 돌아가 조군의 행보를 관망케 하였다. 그리고는 별동대에게 ‘조군은 아군이 철수하는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성채를 비우고 아군을 쫓아올 것이다. 그대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신속히 조군을 성벽에 기어올라 조군의 깃발을 뽑고 한나라의 붉은 깃발을 세워라’라고 당부하였다.”

“乃敢引兵遂下。未至井陘口三十里，止舍。夜半傳發，選輕騎二千人，人持一赤幟，從間道躡山而望趙軍。誠曰，趙見我走，必空壁逐我，若疾入趙壁，拔趙幟，立漢赤幟。”(「회음후열전」. 최익순 역, 2014:125)

2. 한신의 배수진: 군사지리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포진

그림 2를 살펴보면 한신의 본진은 면만수를 등지고 있는 하지만, 개활지가 아니라 해발고도 300m 이상의 고지상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군 본진의 전방 방향(서쪽)으로는 430고지, 450고지 등에 둘러싸인 셋길과 좁은 분지 형태의 공간이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과 그림 4는 이 같은 전장 공간의 지형 분포를 한층 잘 보여 준다.

이 같은 사실은 한신이 정형 전투에서 단지 하천을 등

진 배수진 형태의 진을 치기는 했지만, 불리한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싸우도록 일부러 불리한 위치에 진을 쳤다. 기보다는 병력의 양적·질적 열세를 만회하고 상쇄할 수 있는 전장 공간을 선택했음을 시사한다.

우선 430고지와 450고지 등은 전력이 우세한 조군의 자유로운 기동을 저지함과 동시에 조군에 비해 현저한 열세에 처해 있었던 한군 선발대가 심각한 피해 없이 조군을 적절히 유인하도록 할 수 있었던 일종의 장애물 구실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회음후열전」과 『자치통감』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당시 한신은 선발대를 앞세워 조군을 유인한 다음 추격하는 조군 앞에 군기와 대장기, 그리고 북을 일부러 내팽개쳐 그들을 면만수 동안의 본진으로 끌어들이고 고착했다(권중달 역, 2009; 최익순 역, 2014).

아래 인용문의 ‘큰 싸움이 대등한 기세로 한참이나 벌어지더니(大戰良久)’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한신의 선발대는 조군을 상대로 선전하며 매우 용의주도하게 움직였다. 1절의 「회음후열전」 인용문에도 나와 있듯이, 한신 선발대가 대장기, 군기, 북을 유기한 채 퇴각한 행동은 조군을 유인하기 위한 책략 내지는 전술이었다고 봄이 옳다. 즉, 한신은 배수진을 친 상태에서 고군분투를 이어 가기는커녕, 배수진을 통해 조군의 방심을 유도¹⁰해가며 그들을 유리한 전장 공간으로 유인한 셈이다.

“한신이 선발대 만여 명을 이끌고 배수진을 나서자, 이를 본 조군은 웃음을 터뜨렸다. 한신이 대장기를 굳건히 세우고 북을 치며 정형구를 나서자, 조군은 성문을 열고 요격하러 나섰다. 큰 싸움이 대등한 기세로 한참이나 벌어지더니, 어느새 한신과 장이는 북과 군기, 대장기를 버리고 도주하여 면만수의 진채로 들어갔다. 조군은 성채를 비운 채 재빨리 한군이 버려둔 북과 깃발을 노획하고는 한신과 장이를 쫓아갔다.”

“信乃使萬人先行，出，背水陳。趙軍望見而大笑。平旦，信建大將之旗鼓，鼓行出井陘口，趙開壁擊之，大戰良久。於是信、張耳詳棄旗鼓，走水上軍。水上軍開入之，複疾戰。趙果空壁爭漢旗鼓，逐韓信。”(「회음후열전」. 최익순 역, 2014:125)

만일 정형 전투의 전장 공간이 개활지였거나 기복이 완만한 지형이었다면, 한신의 행동은 패배를 자초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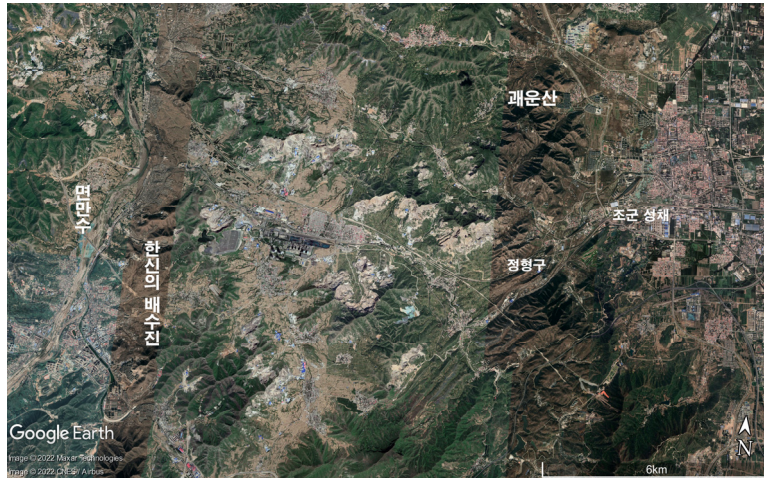


그림 3. 정형 전투가 일어난 전장 공간 일대의 위성 사진

출처 : Google Earth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

* Google Earth로 확인 결과 위성 사진 한가운데의 450고지와 430고지 일대는 도시 인프라나 채석장 등의 건설로 인해 기존 지형에 상당한 변형이 가해졌음(사진 가운데 지형이 깎여 나가고 도로가 난 부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형 전투 당시 해당 고지는 더욱 기복이 커 조군의 추격을 방해하는 장애물 구실을 했으리라고 판단된다.



그림 4. 한군 진지와 전장 중앙의 450고지, 조군 성채 사이의 지형기복도

출처 : Google Earth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

나라, 무엇보다 기병의 돌격이나 추격을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430고지, 450고지 등이 분포하는 지형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신이 이들 고지의 동쪽 사면에 위치하여 적보다 고도가 높은 지점에서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유리하게 전투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지상에 위치한 군대는 적을 내려다볼 수 있으므로 적정 파악은 물론, 활이나 창 등을 이용하여 낮은 지점에서 올라오는 적을 상대하는 데 큰 이점을 가진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은폐·엄폐할 장애물을 확보하기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오르막을 따라 공격해 오는 적에게 피로를 강요함으로써 적의 전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지의 확보와 고지상의 진지 또는 거점 구축은 군사전략 및 전술의 기본으로 여겨지고 있다. 『손자병법』의 「행군」 편부터 적정 감시와

교전에 유리한 고지대나 산악 지대에 군대를 주둔 및 배치하도록 언급하고 있으며(김원중 역, 2016), 고지의 확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사 전술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Collins, 2018). 고지를 확보한 부대가 우세한 적을 격파한 사례는 전사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유사 이래 오늘날까지 성, 요새, 초소, 군사 거점 등이 고지상에 있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Holland, 2005; 이순호 역, 2006; 조두원, 2015; 이에진·박지훈, 2016; 최성재 등, 2016). 더욱이 박격포나 곡사포, 전투기나 공격 헬기 등 전장의 고도를 극복할 만한 무기체계가 미비했던 고대전이라면 고지의 이점은 더욱 극대화된다.

게다가 430고지, 450고지 등의 고지가 분포하고 그 사이로 길과 좁은 분지 형태의 공간이 분포하는 지형은 기병의 운용에 불리하다. 즉, 해당 고지를 엄폐물 삼아 조군을 고착하다 퇴각하는 한군을 조군이 적절하게 추격

하여 격퇴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기병, 특히 경기병은 전통적으로 적의 취약한 측후방을 급습하거나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여 전과를 확대하는 임무를 맡아왔고, 구릉지나 산지가 아닌 개활지에서 운용하기에 적합하다(오숙은·이재만 역, 2017).¹⁷⁾ 만일 개활지였더라면 설령 한신이 작전상 후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군 기병대의 추격에 큰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회음후열전」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한신의 본대는 조군 추격을 받아 큰 타격을 받기는커녕 면만수의 진지에 무사히 합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구릉지와 고지가 발달한 정형 전투의 전장 공간은 배수진을 보고 한신과 한군을 알아보고 추격해 오는 조군을 최소한의 피해로 면만수 동안의 진지까지 유인하는 데 적합한 장소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전장 공간의 고지들이 그렇게까지 험준하지는 않으며, 산악 지형을 활용할 것이라면 차라리 면만수 서쪽의 험준한 타이항산맥의 산악 지대로 적을 유인하는 편이 낫지 않았는가 하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타이항산맥이라든가 알프스산맥, 피레네산맥 등과 같은 험준한 산맥이나 산악 지형은 유사 이래 군대의 진격이나 보급을 가로막는 천연 장애물 구실을 해 왔다(Elden, 2021). 하지만 전투가 일어나는 경우를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험산 준령이나 기복이 극도로 심한 산악 지형, 사막, 툰드라, 열대우림, 빙설 지역 등과 같은 극단적인 지리적 환경에서는 전투가 일어날 수 없다(Keegan, 1994; 유병진 역, 2018; Collins, 2018). 더욱이 정형 전투 당시 정형의 산길은 기병 두 기가 좌우로 나란히 행군할 수 없을 정도로 폭이 좁고 경사 또한 매우 급했다(최익순 역, 2014; 蔡志銓·羅春秋, 2014; 范晓·白英, 2016). 고선지 등 당나라 안서도호부의 장군들이 파미르 고원과 힌두쿠시산맥을 넘어 중앙아시아를 원정한다든가 한니발, 나폴레옹 등이 알프스산맥을 넘어 이탈리아 반도를 침공하는 등 전쟁사에는 험준한 산악 지형을 극복하는 듯 보이는 사례도 적지않은 않지만, 이러한 경우는 산악 지형 자체는 험준하되 군대가 기동하고 교전을 벌일 수 있는 교통로나 분지 등의 지형 또는 지리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 등이 존재한 경우였다(Mahaney, 2004; 이진선, 2019).

군대의 행군조차 힘든 정형에서 한신이 제대로 된 전투를 벌일 수는 없었으며, 전투하는 데 무리가 없으면서 전력의 열세를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지형을 가진 면만

수 정형구 사이의 전장 공간이야말로 한신이 선택할 만한 최상의 군사지리적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다.

면만수 동안의 한군 진지 또한 단순히 퇴로가 없는 문자 그대로의 배수진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치상 면만수를 등지기는 했지만, 그림 2를 살펴보면 한군의 진지는 550고지, 400고지 등의 동사면임을 알 수 있다. 즉, 한군이 사실상 산성(山城)이나 고지대에 있는 군사거점과 같은 위치에서 고지를 기어 올라오는 조군을 고착하며, 패운산에 주둔한 별동대 2천 기가 조군 성채를 점령할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다.

3. 패운산의 위치: 조군 본거지 급습에 적합한 군사지리적 특성

한편 정형 전투의 승패를 결정지은 한군 별동대 2천 기의 조군 성채 점령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물론 한신의 치밀한 적정 감시와 탁월한 전술적 안목, 그리고 진여와 조혈을 비롯한 조군 지도부의 군사적 무능함과 정보 수집을 게을리한 문제 등도 중요한 요인에 해당한다(최익순 역, 2014; 蔡志銓·羅春秋, 2014). 하지만 그림 2를 살펴보면 패운산의 위치와 지형이 갖는 중요성 또한 간과하기 어렵다. 사실 蔡志銓·羅春秋(2014)은 패운산이 정형 전투에서 한신이 승리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는 패운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정형 전투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는 제공하지 않았다.

연구자가 한군의 본진에서 패운산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구글 지도를 활용하여 측정한 결과, 약 40km 정도로 확인되었다. 전근대 군대의 1일 행군 거리가 대개 20km 정도에서 길어봐야 30km 정도였음(Orr, 2010)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다. 하지만 이는 보병의 차량화나 기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마차나 심지어는 인력으로 장비와 물자를 운반해야 했던, 보병 중심의 대규모 부대에 해당하는 행군 거리이다. 정예 기병 2천 기로 구성된 별동대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회음후열전」 등의 기록, 그리고 별동대가 맡았던 임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대는 중기병이 아닌 경기병으로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동 속도가 느린 보병이나 수송대 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군마는 전력 질주가 아닌 행군 속도가 시속 10km 이상인

데다 하루에 최대 80-100km까지 주파할 수 있음(Klecel and Martyniuk, 2021)을 고려하면, 기병으로만 구성된 한신의 별동대는 4시간 이내에, 즉 전투 당일 아침이나 늦어도 오전 중에는 쾌운산 기슭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쾌운산의 셋길은 기병 전술에는 부적합한 지형이지만, 별동대의 임무는 전투가 아니라 은밀한 기동과 매복이었다.

한신이 정형을 넘어 면만수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별동대를 편성하고 임무를 하달하는 일부러 했음을 참작하면, 그리고 그 시점이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이었음을 고려하면, 동이 뜬 뒤 정형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에서 별동대는 이미 쾌운산 기슭에 도착하여 전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게다가 개활지에서 기병 2천 기가 이동했다면 적의 시선을 끌었을지도 모르지만, 쾌운산의 셋길은 이들이 적에게 발각되지 않은 채 은밀히 기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쾌운산의 위치와 고도, 방향 등을 감안하면, 별동대는 소수의 척후병을 쾌운산의 적절한 능선이나 고지에 파견하여 효과적인 적정 감시를 할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된다. 한군 별동대는 쾌운산 남동부의 기슭에 매복해 있다가, 조군이 한신과 한군을 쫓느라 성채를 비운 틈을 타서 신속히 성채를 점거하고 붉은 깃발을 게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쾌운산은 한신이 본대로 조군을 면만수 동안에 고착한 다음 조군 성채를 기습 점거한다는 작전이 성공할 있게 만든 군사지리적 요인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군사지리적 관점에서 중국 초한전쟁기 정형 전투에서 한신이 압도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과정을 재해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정형 전투가 일어난 전장 공간인 면만수와 정형구 사이에는 해발 300-500m의 구릉성 산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었다. 아울러 최대 해발고도 500m가 넘는 쾌운산 일대는 2천 기의 정예 기병으로 구성된 별동대가 효과적으로 은폐 및 기동하여 조나라 성채를 점령할 수 있는 군사지리적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정형 전투에서 한신이 배수진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압도

적인 우세를 가진 적을 유인하고 고착 및 기습할 수 있는 전장공간에서 전투를 벌였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형 전투를 전술적인 견지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하고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한전쟁기 정형 전투를 사기 문제, 또는 한신과 조군 지휘부의 군사적 역량이나 전술 차이뿐만 아니라 지리적 관점에서도 접근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적지 않음을 보여 준다. 아울러 전쟁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여러 전투는 정형 전투와 마찬가지로 군사지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사례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형 전투 외에도 전쟁사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전투를 지리적으로 접근한 후속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안해 본다.

註

- 1) 본 연구에서는 초한전쟁 당시의 인명이나 전근대 시대 중국의 사료 및 편찬자 등의 명칭은 맨 처음 등장할 때는 ‘우리말(원어)’로 표기한 다음 그 뒤부터는 ‘우리말’ 형태로 표기(예: ‘한신(韓信)/한신’, 『사기(史記)』/『사기』)하고, 현대에 집필된 문헌의 저자명은 원어로 표기(예: ‘柴田昇, 2018’, ‘Harrison and Passmore, 2021’)함을 밝혀 둔다.
- 2) 회음후(淮陰侯)란 초한전쟁이 끝난 뒤 한신이 한 고조 유방으로부터 받은 최종 작위의 명칭이다. 이때문에 『사기』에서 한신의 열전에는 「회음후열전」이라는 제목이 붙여졌다.
- 3) 시황제는 10월을 세수(歲首), 즉 한 해의 첫 달로 삼는 역법인 전옥력(顛項曆)을 진나라의 공식적인 역법으로 삼았고, 이는 한 무제가 기원전 104년 1월을 세수로 삼는 태초력(太初曆)을 새로운 역법으로 삼는 역법 개혁을 단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었다(이연승, 2003).
- 4) 큰 하천을 등지고 진을 치는 배수진은 퇴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병력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쉬울 뿐만 아니라, 유사시 작전상 후퇴를 통한 병력의 재편성과 역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급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금기시되거나 ‘극약 처방’ 정도로 인식되어 왔다(蔡志銓羅春秋, 2014).

본 논문의 서두에 언급한 「회음후열전」의 구절 또한 병법에서 금기시하는 배수진을 치고도 승리를 거둔 비결을 의아해하던 부하 장수들에 대한 한신의 답변이다.

- 5) 전국시대 말기에서 초한전쟁기에 걸쳐 활약했던 명사인 장이(張耳, ?-202 B.C.)와 진여(陳餘, ?-205 B.C.)의 생애를 기술한 『사기』의 열전이다. 본래 각별한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두 사람은 초한전쟁기에 조나라의 권력을 놓고 사투를 벌이는 정적으로 변했으며, 정형 전투 당시 진여는 조나라의 실세였고 장이는 한신의 부장으로 참전했다.
- 6) 일례로 7장 「군쟁(軍爭)」 편에서는 높은 언덕에 포진했거나 언덕을 등진 적과의 정면 승부는 용병술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언급한다(“故用兵之法, 高陵勿向, 背丘勿逆…….” 김원중 역, 2016:206).
- 7) 1941년 10월 30일-1942년 7월 4일 크림반도 남서부의 군항 도시 세바스토폴에서 벌어진 나치 독일군과 소련군 간의 전투.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은 소련 흑해함대의 모항인데다 나치 독일군의 주요 전략 목표였던 우크라이나, 캅카스 등지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이곳의 점유를 둘러싸고 격전이 벌어졌다. 소련군은 열세에도 불구하고 방어에 유리한 크림반도 및 세바스토폴의 지형과 세바스토폴에 구축된 견고한 요새를 활용하여 선전했으나, 나치 독일군이 구경 800mm에 중량 1,350t에 육박하는 구스타프 열차포 등 보유한 중포(重砲)를 총동원한 대규모 공성전을 벌인 끝에 결국 1942년 7월 4일 나치 독일군의 승리로 끝났다(Melvin, 2017).
- 8) 1940년 11월 30일-1941년 3월 13일에 소련과 핀란드 사이에 일어난 전쟁. 소련은 제정 러시아의 속국이었던가 러시아 혁명 이후 독립한 핀란드를 되찾으려 했고,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소련-핀란드 접경지대에 있는 데다 카르알라인(Karjalaiset)이라는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영역인 카렐리아(Karelia)의 영유권 확보를 빌미로 핀란드에 침공했다. 소련군은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겨울에 혹한이 불어닥치는 데다 삼림과 호소가 발달한 핀란드의 기후와 지형을 활용한 핀란드군의 방어 전술에 휘말려 막심한 손실을 입었고, 결국 핀란드 전역이 아닌 카렐리아만을 차지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Reese, 2008). 당연하겠지만 겨울전쟁은 기후, 지형 등 자연지리적 요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러시아 혁명과 겨울전쟁 등에 따른 카렐리아의 지정학적·문화지리적 변화에 대해서는 오늘날 인문지리학 분야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Paasi and Prokkola, 2008).

- 9)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기』의 「고조본기(高祖本紀)」와 「항우본기(項羽本紀)」(신동준 역, 2015) 및 「회음후열전」과 「장이진여열전(張耳陳餘列傳)」(최익순 역, 2014), 『한서』와 『자치통감』의 초한전쟁 관련 부분(권중달 역, 2009; 盧敦基李利忠, 2004; 김하나 역, 2013), 그리고 초한전쟁 전만을 다룬 藤田勝久(2006)와 柴田昇(2018)의 저서 및 陳力(2012; 2020)의 논문을 참조하여 구성하였음을 밝혀 둔다.
- 10) 고대 중국에는 진나라 이전에도 상(商), 주(周) 등의 왕조가 있었으나, 이들 왕조는 온전한 통일 왕조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부족 집단의 느슨한 연맹체에 가까웠다. 이 때문에 상나라나 주나라는 고대 중국을 다스렸던 왕조로 인정받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통일 왕조로 간주하지는 않는다(Feng, 2003).
- 11) 자영은 본래 진나라의 삼세황제였으나, 유방이 관중에 입성하자 자신을 스스로 진왕으로 격하한 다음 유방에게 항복했다. 황제에게 묘호를 내렸던 후대 중국 왕조들과 달리, 진나라는 시황제, 이세황제, 삼세황제 하는 식으로 황제의 명칭을 붙였다.
- 12) 오늘날 중국 쓰촨(四川)성 일대의 옛 지명이다.
- 13) 오늘날 중국 산시(陝西)성 한중시 일대로, 고대 중국에서 오지인 파촉과 중심지인 관중분지를 연결하는 절절점과도 같은 위치에 있었다.
- 14) 오늘날 중국 허난(河南)성 상양(滎陽)시이다.
- 15) 오늘날 중국 허난성 궁이(鞏義)시이다.
- 16) 앞서 언급한 「회음후열전」의 기록에는 한신의 배수진을 본 조군이 비웃음을 터뜨렸다는 언급이 있다. 즉, 한신의 배수진은 방심한 진여와 조철이 성채에 예비대조차 두지 않은 채 전력을 다해 한군을 추격하게끔 만든 일종의 심리전 전술이라고도 볼 수 있다(蔡志銓羅春秋, 2014; 蔡志銓, 2017).
- 17) Gat(2006, 오숙은·이재만 역, 2017)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산지와 구릉지가 발달한 서유럽은 보병 중심의 군사문화가, 스텝 지대와 대규모 평원이

발달한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등지에서는 기병 중심의 군사문화가 발달했다.

감사의 글

지도 재구성에 많은 도움을 준 안성기 선생님(가톨릭 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과정)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런샤오리(任曉禮)·추이위안핑(崔元萍), 2019, “한시를 통해 본 조선 군대의 구성에 미친 책계광의 영향” 아시아문화연구, 51, 35-63.
- 司馬光 著, 권중달 역, 2009, 「자치통감 2: 전한시대 I」, 서울: 삼화.
- 司馬遷 著, 신동준 역, 2015, 「사기 본가: 오제부터 한무제가 지 제왕의 역사, 고양: 위즈덤하우스
- 司馬遷 著, 최익순 역, 2014, 「사기열전(中)」, 서울: 백산서당.
- 孫武 著, 김원중 역, 2016, 「손자병법: 시공을 초월한 전쟁론의 고전」, 서울: 휴머니스트
- 송언근, 2016, “답사 코스 개발을 통한 역사적 주제의 시·공간적 접근-이순신 장군 해전지 답사 코스 개발을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4), 131-149.
- 신규용·최형진·박상준, 2021, “디지털 트윈 및 확장현실 기반 미래형 통합전투훈련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22(4), 727-735.
- 이동민, 2020, “『노마만리』의 타이항산 항일 근거지 재현 양상에 대한 문화지리학적 분석” 로컬리티 인문학, 23, 79-123.
- 이예진·박지훈, 2016, “충남 공주시 문화유적의 입지특성: 지형분석과 GIS 분석을 활용하여” 한국지리학회지, 5(2), 143-154.
- 이연승, 2003, “중국의 고대 역법의 사상적 특징과 문화적 의미” 중국과 중국학, 1(1), 79-101.
- 이진선, 2019, “唐 初期 西域 羈縻府州의 지역적 고찰” 동국사학, 66, 227-268.
- 조두원, 2015, “서구 요새 발달사 연구: 비트루비우스부터 보방까지” 문화역사지리, 27(3), 84-99.
- 최성재·박지훈·이예진, 2016, “충남 공주시역 문화유적의 지리적 입지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5(3), 303-313.
- 한지은, 2020, “중국 황토고원의 동굴집 야오둥(窯洞)을 둘러싼 재현의 정치” 한국지리학회지, 9(3), 457-473.
- 허태구, 2014, “임진왜란과 지도·지리지의 군사적 활용” 사학연구, 113, 167-198.
- 황성한·김만규, 2015, “응용지리학으로서의 군사지리학 역할 제고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50(1), 105-122.
- 靳生禾·谢鸿喜, 2012, “汉赵井陘之战古战场考察报告” 华南理工大学(社会科学版), 14(1), 1-8.
- 卢敦基·李利忠 编写, 班固 著, 2004, 「汉书 人物故事」, 杭州: 浙江古籍出版社(김하나 역, 2013, 「한서: 반고의 인물열전」, 성남: 펍킵북스).
- 勝藤猛, 2001, “韓信についての覚え書: 史記御倉侯列伝を読む” 岩手県立大学盛岡短期大学部研究論集, 3, 5-13.
- 藤田勝久, 2006, 「項羽と劉邦の時代」, 東京: 講談社.
- 柴田昇, 2015, “楚漢戦争の展開過程とその帰結(上)” 愛知江南短期大学 紀要, 44, 15-30.
- 柴田昇, 2016, “楚漢戦争の展開過程とその帰結(下)” 愛知江南短期大学 紀要, 45, 27-48.
- 柴田昇, 2018, “漢帝國成立前史 秦末反亂と楚漢戦争”, 東京: 白帝社.
- 齋藤道子, 2017, “「秦の始皇帝」と「漢の高祖劉邦」: 「皇帝像」を考える” 経済史研究, 20, 1-29.
- 范晓·白英, 2016, “井陘 太行山前隘路没有哪条比它更重要” 中国国家地理, 9, 162-173.
- 中國歷代戰爭史編纂委員會, 1963, 「中國歷代戰爭(第三冊)」, 臺北: 黎明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 陳力, 2012, “前漢王朝建立時期における劉邦集團の戰鬪經過について(上): 劉邦集團内部の政治的派閥の形成を中心に” 阪南論集 人文・自然科学編, 47(2), 79-93.
- 陳力, 2020, “前漢王朝建立時期における劉邦集團の戰鬪經過について(下): 劉邦集團内部の政治的派閥の形成を中心に” 阪南論集 人文・自然科学編, 55(2), 53-70.
- 蔡志銓, 2017, “以孫子兵法的觀點分析: 韓信的背水為陣” 海軍學術雙月刊, 51(4), 16-40.
- 蔡志銓·羅春秋, 2014, “韓信背水陣分析: 野澤輝如的觀點” 國防雜誌, 29(5), 67-91.
- Arnaud, P., 2016, Marcus Vipsanius Agrippa and his geographical work, in Bianchetti, S., Cataudella, M., and GehrkeBianchetti, H-J., eds., *Brill's Companion*

- to *Ancient Geography: The Inhabited World in Greek and Roman Tradition*, Leiden, The Netherlands: Brill, 203-222.
- Biersack, J. and O'lear, S., 2014, The geopolitics of Russia's annexation of Crimea: narratives, identity, silences, and energy,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55(3), 247-269.
- Clarke, K., 2018, *Shaping the Geography of Empire: Man and Nature in Herodotus' Historie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Collins, J.M., 2018, *Military Geography for Professionals and the Public*, London, UK: Forgotten Books.
- Corson, M.W. and Palka, E.J., 2004, Geotechnology, the U.S. military, and war, in Brunn, S.D., Cutter, S.L., and Harrington, J.W., eds., *Geography and Technology*, Dodrecht, The Netherlands: Springer.
- Dale, S.F., 2006, Ibn Khaldun: The Last Greek and the First Annaliste Historian,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38(3), 431-451.
- Elden, S., 2021, Terrain, politics, history,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11(2), 170-189.
- Feng, L., 2003, "Feudalism" and Western Zhou China: A Criticism,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63(1), 115-144.
- Gat, A., 2006, *War in Human Civilization*,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오승은·이재만 역, 2017, 「문명과 전쟁」, 파주: 교유서각).
- Harrison, S. and Passmore, D.G., 2021, On geography and war: New perspectives on the Ardennes campaigns of 1940 and 1944, *Annal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111(4), 1079-1093.
- Holland, T., 2005, *Persian Fire: The First World Empire and the Battle for the West*, London: Little Brown(이순호 역, 2006, 「페르시아 전쟁」, 서울: 책과함께).
- Hudson, B., 1972, The new geography and the new imperialism: 1870-1918, *Antipode*, 9(2), 12-19.
- Keegan, J., 1994, *A History of Warfare*, New York: Random House(유병진 역, 2018, 「세계전쟁사」, 서울: 까치글방).
- Klecel, W. and Martyniuk, E., 2021, From the Eurasian steppes to the Roman circuses: A review of early development of horse breeding and management, *Animals*, 11(7), 1859.
- Mahaney, W.C., 2004, A geological/togographical reconnaissance of Hannibal's invasion route into Italia in 218 BC, in Caldwell, D.R., Ehlen, J., and Harmon, R.S., eds., *Studies in Military Geography and Geology*, Amsterdam: Kulwer Academic Publishers, 67-78.
- McCormick, M., Buntgen, U., Cane, M.A., Cook, E.R., Harper, K., Huybers, P., Litt, T., Manning, S.W., Mayewski, P.A., More, A.F.M., Nicolussi, K., and Tegel, W., 2012, Climate change during and after the Roman Empire: Reconstructing the past from scientific and historical evidenc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43(2), 169-220.
- Melvin, M., 2017, *Sevastopol's Wars: Crimea from Potemkin to Putin*, Oxford, UK: Osprey.
- Modiri, M., Aghataher, R., Fallah Zazuli, M., and Jafari, M., 2013, Importance of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GIS) in the command and control (C4I), *Scientific-Research Quarterly of Geographical Data*, 22(86), 5-16.
- Nothhaft, H., 2016, A framework for strategic communication research: A call for synthesis and consil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Strategic Communication*, 10(2), 69-86.
- Orr, R., 2010, The history of the soldier's load, *Australian Army Journal*, 7(2), 67-88.
- Paasi, A., 1999, Boundaries as social practice and discourse: The Finnish-Russian border, *Regional Studies*, 33(7), 669-680.
- Paasi, A. and Prokkola, E.K., 2008, Territorial dynamics, cross-border work and everyday life in the Finnish-Swedish border area, *Space and Polity*, 12(1), 13-29.
- Pederson, N., Hessel, A.E., Baatarbileg, N., Anchukaitis, K.J., and Di Cosmo, N., 2014, Pluvials, droughts, the Mongol Empire, and modern Mongolia,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1(12), 4375-4379.
- Reese, R.R., 2008, Lessons of the Winter War: a study in the military effectiveness of the Red Army, 1939-1940,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72(3), 825-852.

Sayadyan, H. and Gevorgyan, A.A., 2020, Military geography in the context of geographic determinism, *Wisdom*, 16(3), 136-141.

Smith, N., 1992, History and philosophy of geography: Real wars, theory war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6(2), 257-271.

Vouvalidis, K., Syrides, G., Pavlopoulos, K., Pechivanidou, S., Tsourlos, P., and Papakonstantinou, M.F., 2010, Palaeogeographical reconstruction of the battle terrain in ancient Thermopylae, Greece, *Geodinamica Acta*, 23(5-6), 241-253.

Wójtowicz, T. and Król, D., 2018, Multi-domain battle: New doctrine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Zeszyty Naukowe Akademii Sztuki Wojennej(War Studies University Scientific Quarterly)*, 3(112), 64-78.

Wikipedia, 'Chu-Han Contention' 항목, https://en.wikipedia.org/wiki/Chu-Han_Contention (2022년 3월 5일 확인).

교신 : 이동민, 25601,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579번길 24,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이메일: dr.dongminlee@gmail.com)

Correspondence : Dong-min Lee, 25601, 24, Beomil-ro 579beon-gil, Gangneung-si, Gangwon-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Email: dr.dongminlee@gmail.com)

투고접수일: 2022년 2월 16일

심사완료일: 2022년 3월 7일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8일

